# 신사업 성과·수입원 확고… 현 주가에 최대 55% 상승여력

#### Ø metr∰ 관심종목

네이버

CJ그룹 협력… 국내 입지 강화 글로벌 시장 공략에 기업가치 ↑ "절대이익 유지하며 신사업 고성장"

네이버가역대최고실적을기록하며 신성장 동력을 증명하자 증권사가 잇따라 목표주가를 올리고 있다. 국내 입지 가더 강화된 데다 글로벌 시장 공략에 대한기대감이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것 이라는 평가다. 향후 CJ그룹과의 협력, Z홀딩스를 통한 일본에서의 성과 등이 주목 요소로 꼽힌다.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3608억 원, 영업이익 2917억원, 순이익 2353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2%, 영업이익은 1. 8% 증가했다. 분기 실적에서 '라인' 매



출을 제외했음에도 나온 결과다. 라인 매출을 포함하면 역대 최초로 분기 매출 2조원을 넘어선다.

공시 다음날 증권사 기업분석보고서 (리포트)가 쏟아졌다. 목표주가는 대체 로 36만원에서 45만원 사이로 형성됐 다. 현 주가보다 최대 55%까지 상승여 력이 있다고 본셈이다.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신사업에서 거 둔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서치플랫폼 (광고)이라는 확고한 수입원 아래 쇼 핑, 페이, 웹툰의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다. 네이버의 사업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서치플랫폼 7101억 원 ▲커머스 2854억원 ▲핀테크 1740억 원 ▲콘텐츠 1150억원 ▲클라우드 763 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절대 이익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고성 장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확대해가 는 점이 최대 투자 포인트"라고 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커머

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사업의 놀라운 매출 성장은 내년 이후에도 지 속될 전망"이라며 "내년 1분기 실적부 터는 Z홀딩스 실적도 지분법 인식으로 반영돼 내년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내년 네이버의 예상 매출액으로 6조273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예상 매출액 5조2518억 원보다 20%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특히 커머스와 핀테크 부분이 각각 34.89%, 52.73%씩 고성장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커머스와 핀테크는 대표적인 언택트 (비대면) 플랫폼 사업으로 꼽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 혜로 성장 속도에 불이 붙은 대표적 분 야다. 네이버 역시 커머스, 핀테크 매출 을 별도로 분류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커머스와 핀테크 사업은 추가 적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핀테크가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한 것 처럼 커머 스 또한 별도법인으로 분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핀테크와 커머스 법인 모 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기업공개 (IPO)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전 거래일(10월 30일)에 기대와 달리 2.85% 하락하며 29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한 달 동안 2.20%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리스크와 마케팅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우려가 주가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증권가에서는 우려가 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 은 "네이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로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과 징금 규모는 크지 않다"며 "이로 인한 시정조치가 검색, 쇼핑 플랫폼 수익창 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면 에서 실질적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라 고 평가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 현대건설, '갑천1 트리풀시티' 1116가구 분양

#### 1호선 유성온천역 인접 남향 위주 배치로 조망권 **↑**

현대건설이 대전도시공사와 컨소시 엄으로 공급하는 '갑천1 트리풀시티 힐 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1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갑천1 트리풀 시티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1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116가구 로 이뤄진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 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59㎡A 208가 구 ▲59㎡B 28가구 ▲84㎡A 466가구 ▲84㎡B 196가구 ▲84㎡C 218가구 등 전체가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이 중 ▲59㎡A 31가구 ▲59㎡B 2가구 ▲84㎡A 74가구 ▲84㎡B 28가구 ▲84㎡C 31가구등총 166가구가 일반공급, 기관 추천 등 특별공급은 950가구다.

지난 2018년 선보인 '갑천3 트리풀시 티' (1762가구)에 이어 갑천친수구역에 서 두 번째로 공급되는 단지다.

교통편으로는 대전지하철 1호선 유 성온천역이 반경 약 1.5km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도안동로, 32번국도, 호남



대전 유성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 투시도.

/현대건설

고속도로 지선 등의 도로망이 가까워 대전 전역은 물론 타 지역으로 빠른 이 동이 가능하다. 단지 가까이에 대전 시 내를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 램역이 오는 2025년 개통된다.

주변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 더스 등의 대형마트와 도안신도시 내에 조성돼 있는 각종 편의시설, 유성온천 역 등이 있고, 원신흥초, 봉명초, 봉명 중, 서남중(예정), 도안고, 유성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갑천1 트리풀시티 힐스테이트는 남

향 위주 배치에 갑천 조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했다는 평이다.

분양관계자는 "단지 옆으로 갑천을 끼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도안 신도시와 유성 도심의 생활인프라도 쉽 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90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사이버견본 주택은 지난달 8일 공개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7건 검찰 고발

"최근 동향에 맞춰 조사체계 강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대주주가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직전에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치우는가 하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 가를 부양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3분기에 총 7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개인 22인 및 법인 4개사(양벌규정 적 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면서 상장회사의 대규모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다.

실제 A기업은 최대주주가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하기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대규모자금이나 다수의 계좌를 동원 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도 적발됐다. 단순히 시세차익을 위한 인 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도 시세조종에 해당한다.

B기업의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 사를 인수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해 담 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 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했다.

증선위는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기를 부양하거나 최대 주주 주식 대량매도 사실을 은폐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C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주가 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흑자전환 실적을 공시해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팔아치웠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춰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

### 코스피 1% 이상 **▼**··· 반등기대 ETF **↑**

#### 주간펀드동향

한 주간 코스피지수는 1% 이상 하락 했지만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금이 코 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에 몰렸 다.

1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10월 23~29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1.01% 하락했다. 액티브 형에서는 배당형펀드가 1.90%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 스형에서는코스피200지수를추종하는 펀드수익률이마이너스(-)1.23%를기 록했다.

설정액은 3076억원 늘었다. 액티브 주식형에서는 172억원이 빠져나갔지만 뉴딜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자금 유입이 이뤄지면서 인덱스펀드 설정액 은 3248억원이 증가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2.66% 하 락했다.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6.78%), 러시아(-4.67%), 일본(-2.0%)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섹터형에 서는 금값 하락으로 소재섹터펀드가 7.22% 하락했다.

설정액은 1671억원 늘었다. 중국 (267억원),글로벌주식(469억원),북미 주식(666억원) 펀드에 자금이 쏠렸다.

한 주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국내 주식형펀드는 코스닥지수에 투자 하는 '한국투자코스닥두배로증권투자 신탁(주식 - 재간접파생형)(A)'가 3.93% 수익률로 수위를 기록했다. 해외 주식형에서는 중국주식에 투자하는 '브 이아이중국4차산업목표전환형증권투 자신탁3[주식혼합]C'(1.36%)가 좋은 성과를 거뒀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 전국 19개 사업장 9125가구 청약접수

#### 분양캘린더

11월 첫째 주 청약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19개 사업장 9125가구(오피스텔·임대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최대 이슈인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블

록(S4·S5·S1)에서 1698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주요 단지로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 림 라비엔오(679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584가구)', '과천푸르지오오르 투스(435가구)' 등이다. 지방에서도 대 구 수성구 '호반써밋 수성', 경북 구미 '구미 아이파크 더샵', 세종시 '세종 한 림 풀에버' 등 주요 지역에서 1순위 청 약 접수가 진행된다.

/정연우 기자